

“엄마가 될 자격”

결혼하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기를 가질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연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상황에서도 두렵긴 했지만 곧 성공할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이 충분했고, 나이가 젊으니 충분히 바라던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나 봅니다. 병원에 가면 다른 건 없고 호르몬제만 처방을 받았는데 비싼 과배란 주사를 다른 사람의 2~3배로 맞고도 잘 자라면 난포 3~4개 뿐이었습니다. 그 마저도 이전 공난포와 분절배야로 이식 당일까지 이식을 하느냐 마느냐로 조마조마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 나는 시험관 자체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남편과 둘이 살수도 있겠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 바닥에서 더 깊은 지하 끝까지 추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꾸 실패를 하다 보니,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포기하는 마음만 풍선처럼 커져갔습니다. 저보다 일주일 늦게 결혼한 친구는 이미 초등학생 학부모가 되었고, 함께 병원을 다니며 울고 웃었던 지인들이 엄마가 되는 걸 지난 7년간 지켜봤습니다. 친정 같은 난임 카페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결국 모두 임신을 하고 육아에 여념 없을 때 한편으로는 희망을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내 차례가 오긴 몰까 하는 절망감에 수도 없이 빠집니다. 처음에는 조카도 여쁘고, 누군가의 임신 소식에 클 한척 넘길 수 있었지만 아제는 주변의 임신소식에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돌잔치에 참석하는 건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가지 않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돌잔치에는 어쩔수 없이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발 울지말자, 시샘 하지 말자, 표정 관리 잘하고 오자. 스스로 최면을 걸고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번 되뇌이지만 결국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울음이 터지고 맙니다.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니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조여 오는 느낌이 들고, 어쩔 때 그냥 이대로 사고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임신의 문제가 가장 큰 시련이었고,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외로운 싸움은 그만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구나. 처절하게 인생공복 하다가 생각났고 내 팔자에 자식은 없으니 욕심 부리지 말자고 다짐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도 악화됐던 걸 같습니다. 서로를 지키기 보다는 책임 소지를 따지는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잘못이야', '네가 관리를 더 잘했으면' 등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싸움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속상함이 결국 부부싸움의 원인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속하게 힘든 시기를 겪으며 난임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 다독여주고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지도록 응원을 해주니 더 깊은 신뢰로 이어질수 있는 기분이 되고, 부부사이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쯤 시어머니의 암 소식을 접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초기에 발견됐지만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서른 번이 넘는 항암치료로 머리가 다 빠져 가발을
쓴 어머니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도 결혼한지 8년이나
지났지만 저를 아직도 애기라고 부르십니다. 무뚝뚝한 아들만 있던 집에 막내딸이 생겼다면
처음부터 저를 자식처럼 귀하게 여겨주신 분들입니다. 항암이나 머리 힘들어할까봐 궁금해서도
한마디 묻지 않으셨던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남들은 내 남편 아빠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
에 포기가 안된다고 하던데 전 어찌다보니 살아생전 시부모님 품에 손주 한번 안겨드리겠노라
다짐하고 삼기 일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영양제도 한 움큼 챙겨먹고, 운동도 남들에게
독하다는 소리 들으며 열심히 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부산의 해동 용궁사에 가서
소원도 빌어보고, 아들 낳게 해준다는 불상도 만지며 아들이든 딸이든 귀한 아기 한명만 보내달라
고 소원도 빌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기쁨 좋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극심한 난소기능 저하와 적장을 그만두고 임신에 전념하고 싶어도 외벌이로는 시험관 시술은 커녕
대출금 상황에도 허덕일게 뻔합니다. 설상가상 아베님까지 후두암에 걸리셔서 모든 상황이
힘들고 버거워만 집니다. 둘만의 삶을 생각해 본적 없는데 아닙니다. 다 그만둘까 생각도
했었지만 지금까지 노력한게 아까워서라도 포기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작점 겪어보지 않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지 잘 모르는 것처럼, 이 고통 끝에 아이를 얻어 이루말할 수 없는, 눈물
나게 행복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엄마의 큰아 아빠의
눈을 닮았을 지도 모를, 있지도 않은 아이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매번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습
니다. 지금껏 느껴왔던 아픔과 절망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든 것만이 아닌 미래의 부모가 될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기를 더 오랜 시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 부모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더 오래,
깊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이 행복하고 아름다울 순 없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를
기다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히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임해보고
싶습니다.

“엄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엄마가 되는데 있어 결핍을 느끼게 되면 자신감 저하는 물론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깊어질수록 자꾸 혼자만의 세상에 갇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똑같은 출방전에서 출방했는데 나만 텅그러니 남아있는 기쁨 때문에 한 없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어릴 때는 모두들 내 걱정을 해주면서도 나의 유산과 아기 문제는 화제 아닌 화제가 되어 대화의 중심이 되어가기도 해 집에 와서 표정만 윤적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피하게 되고 아기엄마들을 보면 부럽고 질투가 났습니다. 4년 전 어렵게 임신한 아기가 유산이 됐을 때 작장에서 저랑 비슷한 예정일의 임신부가 있었습니다. 임신부가 무거운 서류도 번쩍 번쩍 들고, 매일 야근을 하는데도 나날이 배는 더 불러왔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하루에도 열두번씩 자괴감과 열등감, 억울함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기를 보면 '내가 데리고 와서 키우고 싶다', '아기 엄마 한눈 파는 사이에 데리고 갈까' 하는 위험한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초음파 사진, 아기 사진만 올라와도 친구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남들은 쉽게 가는 길이 나만 가시밭길 같아 보고 있자니 내 자신이 더 싫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사이도 서먹해지고 가족들과의 만남도 꺼려지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 배냇저고리를 베개 속에 넣고 자면 임신한다더라, 아기가 들어서면 그림이 있다더라, 아기신발을 현관에 두면 삼신할머니가 아기를 보내준다더라. 한번쯤 들어본 미신은 다 해볼 정도로 간절한데, 기약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다는 생각에 답답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민해지고 점점 성격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고, 인간관계도 좁아져가고 어디하나 하소연 할 데도 없는 내가 한편으로 너무 불쌍하기도 합니다. 임신이라는 목표를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시술에만 매달려 살아온 지난 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허무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힘이 되어주는 시부모님께도 죄송합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랬습니다. 검사상의 수치일뿐 그게 너의 문제점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로 자신을 학대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럴수록 모든게 원망스럽고 흠뻑 젖어 진다는걸,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나도 엄마가 된다고 믿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없어집니다. 내 옆을 지나는 유모차, 배 나온 임신부는 다른 세상의 그림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림 같은 세상에 나는 언제쯤 갈 수 있는지 위축되고 작아 질 때도 있습니다. 끝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어쨌든 되도 않는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건 아닌지,

알 수 없는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럴 때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더 하려야 할 수 없을 만큼,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너는 최선을 다했었다고. 그냥 마음 비우고 지내볼까도 생각했었지만

훗날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았을 때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노라 말하고 싶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처럼 아무리 힘들고 자치더라도 시련은 시련일 뿐이지 실패는 아니니까
이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된다는 확신으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길에서 거쳐야만 하는 가시밭길 이라면 웃으면서 걸어나가고 싶습니다.
참고 견뎌보던 반드시 장미밭길이 나올거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말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그런데 마음을 비워라는 말뜻은 아기를 포기해야한단 말이라는 것을 알개요?
눈에 보이는 것도,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또 누군가는 아직 젊으니 조금씩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30대에도 불구하고 40대의 건강상태로 임신이 어렵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것은 망설이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찾는 용기라고 생각
합니다. 나를 많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수임지임은 선택
이었지만 하루 빨리 이 고통속에서 벗어나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이제 자비로 전행 해야 하는데 남편이 몸이 안 좋아 이번달 부터 회사를 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부터 말성이던 허리디스크가 더이상 버틸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무척 속상했지만
힘 없이 누워 있는 남편에게 휴식을 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신경사술을
받아야 하지만 그럼 시험관 사술을 당분간 포기 해야 하기에 물리치료만 다니고 있습니다.
가슴까지 계획에도 없던 외벌이가 되어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
해 잠이 오질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건강보험 지원 회수 철폐 요청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언제쯤 현실로 이뤄질지 알 수가 없고 난임지원책이 마련 됐다고는 하지만 다소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인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말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수 많은 부부들이 조금 더 부담 없는 환경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더 나은 난임정책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년처럼 뒤 돌아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시험관이어서 좋은 점도 있다는걸”

첫번째, 철저한 계획임신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임신을 위해 병원에 가곤 저처럼 원인을 찾아 하나씩 해결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질병이 발견됐을 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자연임신이 쉽게 되는 이들은 생각지도 못할 공을 들입니다. 임신을 위해 몸 만들기를 하고, 한약탕을 먹거나 뜸을 뜨고 족욕이나 조깅을 하기도 합니다. 영양제를 먹고 108배, 걷기를 1시간 씩하며 운동을 하고, 음식 조절에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덩달아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받으며 건강히 아이를 바라는 상태에서 시작하기에 언젠가 올 아기를 위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태교를 일찍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임신으로 생긴 아기는 아기가 처음 생기는 시기인 4~6주간 염태가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지만 시험관 시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훗날 아기가 될 난자가 크는 첫날부터 알고 있습니다. 고배란 주사를 맞고 난자를 키우며 염태의 마음을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금연·금주를 시도하고 운동을 하며 정자의 운동성과 양을 생각하며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수정란을 이식하는 순간부터 아기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고 임신부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하고 가족과 남편이 많은 배려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임신이 아니라고 하면 그동안의 김치국과 설레발에 민망하기도 하고 좌절과 슬픔에 빠지지만 고반쯤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태교가 거창한가요? 최소한 시험관은 한달 먼저 태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번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찍 깨닫게 됩니다. 주변에 여러번의 시험관 시술을 통하 아이를 가져 출산한 지인들을 보면 아기의 성장 발달 모든 과정에 많은 감탄을 하고 감사하면서 지켜보는 걸 보았습니다. 수 많은 실패와 좌절, 눈물, 아픔을 겪으면서 부모가 된 지인들은 저에게 영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난임병원에서 가면 차게 로또를 맞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몇 톨라락으로 모자란 노력, 세월을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언젠가 소중한 아기를 만날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번째, 나를 돕는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요즘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중 하나가 “난 정말 네가 진심으로 잘됐으면 좋겠어”입니다. 많이 부족한 나에게 아낌없이 응원해 주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잘 되어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듭니다.

자연임신으로 쉽게 임신이 되었다면 과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토록 중요하고 일어서는 큰 힘이 된다는 걸 알았을까 싶습니다. 병원에서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는 의사선생님 계도 감사드리고,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항상 내 옆에서 7년간 묵묵히 병원을 함께 대려주는 남편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다섯째, 연말 정산 공제액을 초과해 세금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하면서 여러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과배란을 유도 하며 제가 겪고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걱정하기도 하고, 줄어드는 통장 잔고에 다음달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매번 뺑뺑만 나오는 피검 수치에 실망감과 자괴감이 쏘나미처럼 밀려오고, 이식 후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걸 보고 이렇게 까지 꼭 시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고, 누군가는 시험관 시술로 생긴 아기는 건강하지 못할 거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파랑새 수기를 작성하며 문득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열하고 보니 저도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면도 많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힘이 어떤 약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를 뚫릴때도 한발 한발 내딛어야 하는 것처럼,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데 희생을 다하고 그렇게 하루 하루가 쌓이다 보면 지나가던 기적이 발길을 돌려 반드시 나에게 찾아와 줄거라고 믿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